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이나 새 야구장이나

■ 광주 야구장 건립 어떻게 되나

시민건설위원회 구성 건립방식·장소 결정 다른 기업 제안서 제출 돔구장 재론 가능성

포스코건설의 사업제안서 제출 포기로 광주 돔구장 건립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돔구장 건설에 필요한 2천500억원대의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선 민자유치가 필수지만 포스코건설의 포기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진다. 돔구장 건설의사를 밝힌 후 또 다른 건설업체도 아직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자유치를 통한 돔구장 건설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 업체는 애초 이달 안으로 사업제안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돔구장이냐, 일반야구장이냐=광주시는 돔구장의 경우 민자유치, 일반야구장은 공공재정 투입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만일 돔구장을 제안하겠다고 밝혀왔던 또다른 건설업체가 제안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제안 내용을 시가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야구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45년 된 무등경기장의 리모델링과 다른 장소에 새로운 개방형 야구장 건립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08년 8월

박광대 광주시장의 '야구장 건립' 공약에 따라 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시는 국비 270억원, 시비 730억원 등 1천억원의 투입해 2만5천~3만석을 갖춘 8만㎡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을 계획했으나, 같은 해 12월 이 용역을 일시중지해 둔 상태다. 시는 포스코건설이 제안서 제출 포기의사를 밝히자 야구장시민건설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 추후 건립방식, 장소,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돔구장 제안 다른 대기업은=시는 포스코건설 외에 돔구장 제안 의향을 가진 또다른 건설업체는 조만간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기업이 포스코건설과는 달리 제안서를 내놓는다면, 돔구장 건립사업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돔구장 제안서 제출 포기를 계기로 민자유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해당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원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에 적절한

수준의 수익창출 구조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민간자본을 투자할 대기업의 제안서를 받아보기 전부터 지역 내에서 특혜 시비가 이는 등 민자유치에 대한 지역 내 거부 반응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요소를 동반할 수

정을 거쳐 도시발전을 이뤄냈다"며 "민간자본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지역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돔구장 건설 추진과정=광주시는 포스코건설에서 제안서를 보내는 것으로 보고, 이달 중으로 돔구장 및 스포츠·레저·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할 예정이

치해 330만㎡ 규모의 단지를 만들어 광주시의 산업구조를 기존 제조업·첨단산업에 문화·관광사업을 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돔구장의 관리·운영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말에는 시 직원들이 일본 내 돔구장이 소재한 도시를 방문해 성공사례, 기대효과, 운영 방식 등을 배우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포스코 건설의 투자 포기 광주시의 돔구장 건설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광주 무등경기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밖에도, 선진도시들도 이와 같은 과 있다. 무려 2조5천억원의 민간자본을 유

현장과 시각

민자유치 딜레마



윤현석 사회부 차장

포스코건설이 논란을 빚어온 광주 돔구장 건설 투자를 포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업 자체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광주시는 일단 민간자본 2조5천억원을 유치해 돔구장을 건설하고, 그 주변을 스포츠·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도시산업 구조개편'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지자체와 민간자본 유치 및 인센티브 부여 자체에 대한 지역 내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돔구장 추진과정에서 여과 없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민간자본을 투자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지역 내에서는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일부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면서 때 이른 '특혜시비'가 발생한 것이다.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본 뒤 그것의 적정성을 따져도 됐으나,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고서야 기업이 수천억원을 투자하겠느냐'는 의혹이 일었고 이는 결국 포스코건설이 사업제안을 포기한 제 1의 사유가 됐다.

기반시설 확보나 사회복지 등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이 증가하면서, 향후 지자체가 대규모 도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자유치는 필수불가결하다.

물론 과거 민자유치를 하면서 과오도 있었다. 광주의 제2순환도로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예측 수요 및 수익 보장 등으로 인해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공재정의 부족, 법적·제도적인 미비와 해당 공직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원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한 과거 민자유치 사업의 공과를 명확히 검토하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민간자본의 유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경계해야한다. 공공재정으로부터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간자본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기에 때문이다. 광주시의 올해 예산은 2조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그 10% 수준인 2천억~3천억원 수준이다. 그것도 모두 쓸 곳이 정해진 돈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도시에 필요한 시설은 자꾸만 늘어간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민자유치인 것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할 시설이 반드시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민자를 투자하는 기업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적정했는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역 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도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시기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 한다. 그 과정에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나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도시일수록 그렇게 해야할 당위성이 높다. 그러한 모험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chadol@kwangju.co.kr

■ 포스코, 돔구장 왜 포기했나 “아파트 1만세대 못 팔면 밀진다” 판단

대구엔 호텔·관광시설·아파트 요구

포스코건설은 지난 5일, 광주시에 돔구장 사업 제안 포기 의사를 밝힌 반면 대구시에는 돔구장 건설 제안서를 보냈다. 포스코건설이 이처럼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배경을 들여다보면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마인드가 숨어있다. 공공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져가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민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사업은 포기=광주시는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

택 건설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돔구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아파트 건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광주지역 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포기의사를 밝혔다. 포스코건설도 '장애물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광주시에 제출한 공문에서 "3개월 동안 분양률 등 사업추진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했다"며 "그러나 돔구장 건설재원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시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 및 발전방향과도 부합되지 않아 사

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는 제안서 제출=포스코건설이 광주를 배제하고 대구를 선택한 것은 대구지역의 우호적인 여론이 일차적인 이유라는 분석이다. 대구는 5년 전부터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접촉, 돔구장 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대구는 특히 공청회와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을 통해 민자유치를 통한 돔구장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포스코건설은 대구시에 보낸 제안서를 통해 '수익창출을 위해 83만㎡의 부지에 돔구장과 호텔 등 관광시설,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체육진흥과 임동현(53) 담당은 "일단 제안서 내용을 다음주 내로 각 실

과에서 검증작업을 할 예정이며, 5년 이상 다양한 기업들과 협의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취사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도 미분양주택이 많은 만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전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포스코건설이 제안서를 보내온 만큼 이를 토대로 대구시의 제안서를 포스코건설 측에 보내는 등 향후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자유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대기업이 칼자루를 쥐기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며 "지역 내에서도 무조건 민자유치를 반대하기보다는 우선 제안을 받아본 뒤 그에 대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2010학년도 광주 바이블칼리지 신입생 모집

한국 신학교 최초 정규 커리큘럼에 영성자유대학이니까 꼭 개설!
마지막시대의 마지막 부르심!

구분	학비	입학	수업	졸업
신학부	1,200,000원	2010.2.15	2010.9.1	2011.12.31
영성자유대학	1,200,000원	2010.2.15	2010.9.1	2011.12.31
영성자유대학	1,200,000원	2010.2.15	2010.9.1	2011.12.31

학부 신학부, 영성자유대학, 영성자유대학
입학 2010.2.15 (월) 오전 9시
수업 2010.9.1 (월) 오전 9시
졸업 2011.12.31 (월) 오전 9시

문의처 광주 바이블칼리지 입학처 (062-270-1111) | 062-270-1112 | 062-270-1113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1-1 (062-270-1111)

광주바이블칼리지
 Bible College of Gwangju